

본문: 사사기 7:1~8

제목: 진정한 사사, 여호와 하나님

## - 설교 한문장 요약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 1.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법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룻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이 진을 친 곳, 하룻(ἡρῦ)의 본래 의미인 ‘두려워 떠는 자’처럼 모여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다수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할 미디안의 군대는 135,000명 이었고, 그들은 고작 32,000명 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전쟁에 있어서 군사력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숫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랑하며 영광을 취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기신 목적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 염려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신8:18)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모인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 하십니다.

모여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20:8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22,000명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는 10,000명이 남았고, 승리를 위한 교전 비율은 최소 13.5:1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죽기를 각오하며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만 남아 군대의 사기가 충만했기 때문에 아직 할 만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에 물가로 내려가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과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수하여 더 적은 수인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전 비율은 300:1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진정한 사사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 2.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법

신앙의 세속화는 돈과 명예 등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속화란 세속적 사고방식과 방법론을 추구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군사력은 다다익선이며, 사업을 진행함에 최선은 물량공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취와 성공을 위해 “더 많이, 더 높이”를 추구하고 이것이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개인적 신앙과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군사력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술이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숫자인 300명을 선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숫자를 늘려야 하나님의 일을 완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진정한 사사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전쟁에서 이길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비전에 대한 소망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이긴 싸움을 치룬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 전쟁을 치룬 것이 아니라 싸움에 자신을 던져 승리를 받은 것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긴 싸움에 자신을 던져 승리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승리가 확정되었어도 싸움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이기에 압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사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약속을 신뢰 할 때, 때로는 힘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싸움을 기쁨과 감사로 담대히 받아들이며 한 발자국을 내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사사기 16:23~31

제목: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 - 설교 한문장 요약

“우리를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 1. 나실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삼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란 일정 기간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바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카락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혹, 이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머리카락을 깎고 비둘기 두 마리로 정결례 제사를 드린 후 그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삼손은 일정 기간이 아닌 일생을 나실인으로서 사사로 헌신하도록 부름 받았지만, 나실인의 규례를 모두 어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과 들릴라의 손을 빌어 삼손의 머리카락을 깎아냈고, 비둘기 두 마리 대신 그의 두 눈으로 정결례를 드려 나실인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때에 그로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아 헌신된 나실인의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 다곤이 그들의 원수 삼손을 자기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찬양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더욱 기념하고 즐기 위해 삼손을 불러다가 재주 부리게 하기로 하고, 삼손을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 때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제야 인정하며 그의 평생에 두 번째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의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을 향한 복수를 바라는 자기 중심적인 간구였지, 사사로서의 소명의식이나 나실인으로서의 헌신 따위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시어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모욕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눈이 뽑힌 삼손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생전에 죽인 사람들 보다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 답지도, 사사 답지도 않은 삼손을 나실인이요 사사되게 만드셨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록은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2. 나실인이 되어가는 우리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실인은 삼손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실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되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 동안 정결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다시 지어지며 잠시 회복되는 것 처럼 보였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선민의식과 민족주의를 실현시킬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나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상관 없이 나실인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과 사사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어 구원하셨고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정결함을 통해 우리가 증인이,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가 솜씨 좋은 연주자의 손에 들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듯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심으로 우리를 성도, 제자,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어긋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용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 할 것이 없습니다. 사사 답지 않은 삼손을 사사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요, 제자요, 증인이라 말씀해주심에 감사함으로, 그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본문: 사사기 21:15~25

제목: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으므로

## - 설교 한문장 요약

“진정한 약속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합시다.”

### 1. 왕이 없어서 일어난 일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두 이야기, 특히 본문이 속한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로 시작해 실로의 여인 납치로 끝나는 이야기는 사사 시대의 어두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첩을 둔 레위인, 멸망한 소돔과 고모를 뚫 닳은 기브아 사람들, 언약 궤에 대한 모독, 베냐민 지파의 전멸 위기, 아베스 길르앗의 집단 학살은 도저히 하나님의 선민을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당한 일에 대한 분노로 시작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혐오감은 동족 상잔의 전쟁과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로 치달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며 납치를 종용하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 맺어진 웃니엘과 악사의 아름다운 결혼으로 시작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절기에 납치당하는 여인들의 비명과 울음 소리로 맺어지는 결혼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사사기는 미가 신상 이야기 초두에 등장한 후렴구를 반복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부합하여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혼란과 부패의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왕이 없으므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후 사무엘상 8:7에서 말씀하시듯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과 질서를 무시한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옳은 결정을 하지만 그 결과는 혼란과 부패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 있다면 달랐을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상 왕의 중개적 통치’를 필요성을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며, 4번이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17:6, 18:1, 19:1, 21:25)는 표현을 통해 왕 아래에서는 상황이 좋아 질 것이라는 암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지상의 왕권이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여 중개적 통치를 하는 지상의 왕권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의 등장으로 사사 시대의 암흑기를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 2. 왕이 있다면 일어날 일

그렇기에 이후 이어지는 성경이 룯기와 사무엘서라는 점은 이 사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룯기는 사사 시대의 비참함을 한 나옴과 룯의 가정으로 압축하여 제시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장면과 이들을 통해 태어날 합당한 왕, 다윗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되었고 그 땅에 평안을 이루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태어난 왕을 찾아 베들레함으로 찾아 왔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며 예수님을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기에, 사사기 말미의 왕에 대한 두가지 의미를 모두 충족하는 왕, 하나님 왕이시며 동시에 사람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형편에 상관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에스더 4:13~17

제목: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 - 설교 한문장 요약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 1. 섭리에 자신을 던지는 에스더

에스더서는 다른 65권의 성경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결과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과 결과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각 사람들의 사소한 결정과 우연들이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왕비를 뽑는 관리의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우연히 왕의 암살계획을 들었습니다. 왕은 3일을 금식한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던 왕은 궁정 일기를 읽었고 수 많은 내용 중에 모르드개에게 포상하지 않은 이야기를 읽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일 허락을 받기 위해 왕에게 찾아왔다가 도리어 모르드개를 높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왕은 하만이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 수 많은 각자의 결정과 감정, 오해, 기가막힌 타이밍과 우연을 통해 죽기로 정해진 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조차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의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으로 변화하는 변곡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날이 결정되자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으며, 자신은 왕에게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모르드개의 요청을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며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각자의 사정과 결정, 기막힌 타이밍과 우연을 통해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통한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그를 대표하는 유명한 말로 대답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에 던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 2. 섭리에 우리를 던지면

우리의 삶은 당장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소한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정해진 일’, ‘운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운명이라고, 정해진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이고 기적과 같은 것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매일의 삶의 우연을 가장한 수 많은 사건과 사건들을 통해 깊이 개입하고 일하십니다. 이 섭리와 다스리심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때 우리는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 자신을 던졌듯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 할 때 우리는 끊임 없이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도, 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

- 참고 문헌 및 설교

『여호와와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생명의말씀사, 김지찬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 생명의말씀사, 김지찬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7: 사사기』, 대한기독교서회, 김의원/민영진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17: 에스더』, 대한기독교서회, 최종진

『엑스포지멘터리: 사사기』, 국제제자훈련원,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에스더』, 국제제자훈련원, 송병현